

6/21/20

설교 제목: 아브람과 헷불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 15 장 5-21 절

-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 (창 15: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 (창 15: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 (창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헷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지고 허탈해 하고 있는 아브람을 헤브론으로 찾아 오셔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조카 롯으로 인해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후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브람을 또 다시 찾아 오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같이 아브람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신 것은 아브람이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과 땅을 나누거나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뒷처리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했고 때로는 불신하고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후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언약을 의심하는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과 헛불 언약식을 체결하심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다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해 표징을 구한 것은 비단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러했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기드온 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연고로 칠 년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횡포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말씀을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삿 6: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삿 6: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삿 6: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삿 6: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삿 6: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삿 6: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삿 6: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삿 6: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삿 6:40)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히스기야의 예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은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히스기야의 수명을 15 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앗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말씀의 징표를 구합니다.

(왕하 20: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하 20: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왕하 20:6)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왕하 20: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왕하 20: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왕하 20:9)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왕하 20: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왕하 20: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언약에 표징을 구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찢개고 그 찢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찢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된 숫양을 사용한 것은 삼 년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 정도 자란 것이 너무 어리지도 너무 나이가 들지도 않아 건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람은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가져와 피를 흘려 죽이고 그 중간을 찢개어 그 찢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새는 작기 때문에 찢개지 않고 피를 흘려 죽인 다음에 두 마리를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손과 아브람 개인에 관해 말씀을 주십니다.

(창 15: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 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아브람 자손들은 사대 만에 그나라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자손들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람 자손으로 하여금 400 년간 이방에서 고난을 받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또 아브람 자손이 아직 수적으로 너무 적고 힘도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며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람 자손으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므로 당시 최고 부강한 애굽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람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아무 이유없이 쫓아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리거나 조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기질과 성품과 행동 습관을 근거로 그들의 미래의 행동을 미리 아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 성취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조화있게 이루어나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은 언약을 준수한다는 증표로 짐승을 죽인 후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쪽은 이 짐승들 같이 쪼개져 피흘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바라'로부터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쪼개다' '자르다'라는 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이 의식을 행하심으로써 아브람에게 당신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언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모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쌍방이 각각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후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쪼개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람 간의 언약 체결식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계약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이 맺은 쌍무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지키시겠다고 맺은 편무 계약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이 계약은 아브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계약을 성취시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 때와 같이 아브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언약을 체결한다면 이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필히 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 아닌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이루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을 이루는데 아브람이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들이 받을 기업의 영역을 주십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고 신실한 분이십니다.